

대학 온라인 강의 장애인 학생엔 무용지물

대부분이 배려 없이 급조 자막도 수어통역도 없어 도우미 없인 수강 불가능

시각장애학생인 A씨는 조선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강의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오로지 교수 음성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하면 자주 끊기는데다, 혼자서는 시각 장애로 끊긴 부분을 다시 찾아 듣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이라곤 하지만 수업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생으로 역시 장애를 갖고 있는 B씨도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강의 외에 첨부된 도표나 그래프 자료를 읽는데는 해당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전문대에 다니는 청각장애인 C씨도 자막이 없는 온라인 강의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 C씨는 "온라인 강의가 자료 사진을 띄워놓고 강사의 목소리를 입혀놓은 형식이라 입 모양조차 볼 수 없다"면서 "강의의 자막을 깔아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에 들어갔지만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습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수업을 받았

던 예년과 달리,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막이나 수어 통역조차 갖춰지지 않는다면,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18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의 경우 73명의 장애인 학생 중 시각장애학생 30명이 온라인 수업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선대도 51명의 장애인 학생 중 15명의 시각장애학생이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대(10명 중 청각 3명), 동신대(10명 중 시각장애 3명) 장애인 학생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학교측은 교수들에게 동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제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학생들은 정상적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터트

리고 있다.

급조한 온라인 강의 자료를 만들다보니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전명" 상태의 학생의 경우 수업 자료를 첨부해도 학습도우미의 도움 없이는 전혀 받아들 수 없는 형태라는 게 장애인 학생들 설명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이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동영상 강의 속 제목과 소재목만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들도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청취, 보완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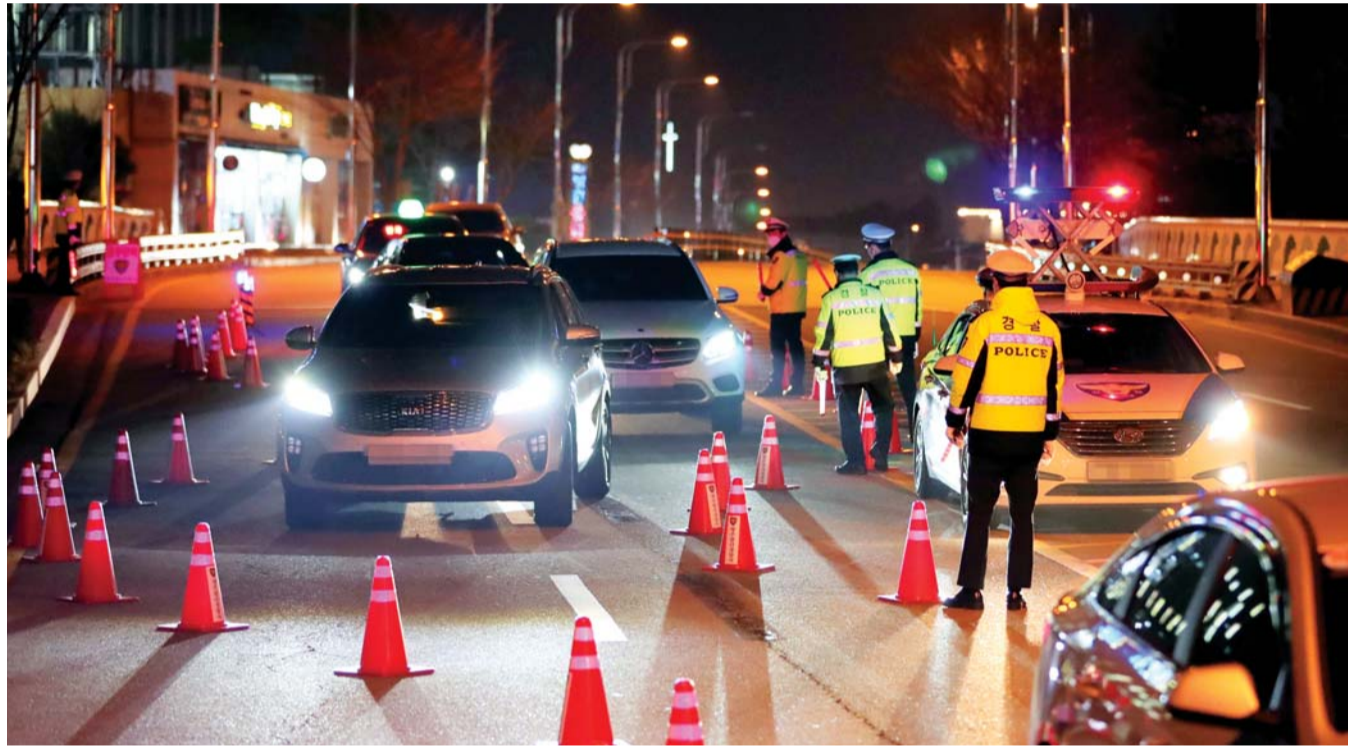
교육현장 불편사항 찾아주세요 전남교육청 '민원개선 발굴단'

전남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민원제도를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원제도개선 발굴단(TF)'을 운영한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민원담당자 위주의 민원제도개선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실생활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제도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내는 '민원제도개선 발굴단(내·외부)'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발굴단은 국민 접점에서 유의미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교육수요자인 외부 발굴단은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을 찾아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양방향 민원제도 개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가 바꾼 음주운전 단속법 17일 밤 광주 광산구 신창동 대로에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음주단속(광주일보 2020년 3월 16일자 6면)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스크 재고량 한눈에...광주 고교생이 개발한 앱 '눈길'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서형찬 군



'마스크 5부제'에 따라 마스크 구입난이 여전한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공적 마스크 재고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3학년인 서형찬(18·사진)군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인포' 앱(코로나.info)을 개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가 담긴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소

식을 듣고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앱 개발에 나섰다.

서 군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누구나 정보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장소 검색을 통해서도 마스크 재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앱을 개발했다.

특히 '소진된 장소 숨기기' 기능을 통해 마스크가 없는 약국은 보이지 않는 대신

마스크 재고량이 남은 약국의 정보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 군은 "앞으로 선별진료소 정보, 국민안심병원 공개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앱도 개발,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고익중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은 "기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모습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인재를 양성에 학교 측에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8, 해질 18:43, 달뜨기 03:51, 달짐 13:56

시설물 관리 유의
남하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바람 강하게 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1/15 ~ 보성 맑음 7/15
목포	맑음	10/12 ~ 순천 맑음 9/17
여수	맑음	10/17 ~ 영광 맑음 10/12
나주	맑음	9/15 ~ 진도 맑음 10/14
완도	맑음	12/16 ~ 전주 비온뒤 맑음 12/13
구례	맑음	6/16 ~ 군산 맑음 10/12
강진	맑음	8/16 ~ 남원 맑음 5/13
해남	맑음	9/16 ~ 흑산도 맑음 9/13
장성	맑음	9/14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안바다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면바다(북)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면바다(남)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남해서부	안바다	남서~서 1.5~3.0	북서~북	1.5~3.0
	면바다(서)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면바다(동)	남서~서 2.0~3.0	서~북서	2.0~4.0

◇생활지수

- 감기: 보통
- 뇌졸중: 보통
- 미세먼지: 보통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03:26, 16:56	11:04, 23:11
여수	12:59, ---	06:46, 18:39

◇주간 날씨

날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	☁	☁	☀	☁	☁	☁
기온	4/18	6/21	11/20	5/18	5/20	6/19	9/20

오늘 시속 70km 돌풍...광주·전남 강풍 예비특보

19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발생한 큰 기압차로 19일 오전부터 밤사이 최대 시속 70km의 강한 돌풍이 불겠다"고 전망했다.

서해남부와 남해서부해상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령됐으며, 최대 시속 58km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선별진료소와 같이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첩합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산구노조 지부장 성추행 의혹 제기 논란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전국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부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산구지부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구청 앞에서 광주지역 여성단체협의회가 현직 지부장인 K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단체들은 "광산구지부장인 K씨가 지난 2016년 4월 부하직원인 노조사무처장(노조 자체채용)인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광산구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 해당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성추행을 주장하는 피해 여성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직접 입장글을 낭독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K씨는 "수년 전에 발생해 이미 마무리 된 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지부장 선거와 4·15 총선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